

나프타에 직면한 한국

Manuel Uribe Castañeda

Embajador de México

I. 서론

나프타가 한국에게 제공할 반대급부와 기회는 국가 경제의 국제화라는 더 넓은 상황 하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세계화 과정의 일부로 분석되어야 한다. 총체적인 관점이 없다면 그 관계들에 대한 분석은 필연적으로 편향되거나 불완전해질 것이다.

II. 수평적 통합, 개방적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화

영국 고전주의자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르도에게서부터 발전과 국제무역에 관한 이론의 근본 원리들이 수립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담 스미스는 전문화와 생산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즉 발전과 소득 사이의 관계를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전문화를 한 국가가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취하는 비교 우위와 관련지었다.

20세기 기술혁명은 전문화의 과정에 역점을 두게 했고 동시에 전문화 과정은 우리 시대 두드러진 기술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한 국가는 가장 급속도로 발전을 유도하리라고 여겨지는 특정한 전문성을 갖는 유능한 인력자원의 개발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우위를 예정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날 발전의 경제는 기술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인력 자본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금세기 초엽부터 60년대까지 산업화의 모델들은 수직적 통합과정을 용이하게 했다. 이 통합으로 일련의 생산에 있어 각 단계가 다음 단계와 양립할 수 있음이 확인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전형적인 20세기 중엽의 한 섬유회사는 자연상태의 원사 백화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의류 백화점으로 끝을 내었다. 자동차산업이나 제철업 등 많은 다른 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 특히 응용 자동제어과학의 발달과 지구대기권 바깥 위성의 상업적 이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산 덕분에 세계적 차원에서 기술혁신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전문화가 증대해가는 기업들에서 최대로 적절함을 보여주는 수많은 심급에 의해 수직적 통합의 원칙은 재촉되었고, 그 기업들은 기술혁신이 훨씬 더 가속화되었다. 시작에서 종료까지 모두가 통합된 일련의 생산을 갖게 된 결과, 상호경쟁 상태에 있는 다른 공급자들이 만든 부품들을 이용하여 하나의 제품을 '조립하는' 것보다 점차 이득이 줄어들었다.

결국 수평적 통합으로 특징지어지고 점점 더 확산되는 하나의 생산형태가 생겨났다. 이 생산형태에서는 각각의 부품들에서 전문화된 다양한 기업들이 분업을 통해 일정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게 되었다. 생산재는 유형이거나 무형일 수 있으며, 무형이란 금융업이나 운수업, 판매업 등에 관련되는 것들을 말한다. 수평적 통합 모델의 중요성은 어떤 재화나 궁극적인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모으도록 여러국가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는데, 각 국가들은 인력자원을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선택한 활동들에서 전문화한 성과인 자신의 경쟁우위를 이용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점점 더 상용적인 분업생산 형태가 탄생한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컴퓨터는 여러국가의 다양한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다른 많은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부품의 수는 증가해가므로, 부품 각각의 전문화와 기술 영역은 그 기업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의 개별기업에 의해서는 그 전체가 포괄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리하여 전문화에서 파생된 기술 분할에 의해 수평적 통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분업생산은 수평적 통합 모델을 칭하는 다른 형태로서 다양한 공급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서로 경쟁한다는 걸 가정한다. 즉, 분업생산은 여러국가의 참가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델을 암시한다. 무역협정을 통해 자국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로 여러국가 사이에 결정했다는 사실이 그 모델이 차별적이지 않고 세계자유화의 경향

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다른 국가들의 공급자들을 밀쳐내어야 한다는 걸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나프타처럼 차별적이지 않은 부분적 협정을 출발로 하여 보편성을 획득하려는 무역정책의 틀에 해당한다. 지구적 차원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은 달성하기 어렵고 더디므로, 보편적 자유화를 궁극적 기준으로 삼는 부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차별없는 자유무역이라는 원칙에 결코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분들이 결합될 때 전체가 통합되리라고 생각된다. 즉, 지역간 협정들이 이루어질 때 점점 세계 자유화의 목표도 달성되어갈 터이다.

이런 분석에 맞는 또다른 당대 현상은 세계화현상이다. 이 용어는 일정한 생산물이 특정한 하나의 시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구상되고 판매된다는 걸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의 어떤 부품들의 경우에 생산업체들은 최종상품을 생산하는 세계 모든 회사들을 고객으로 삼는다. 세계화는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생산단계를 암시하는 생산규모에서 파생되는 경쟁력을 최종 결과로 유도하려 한다. 부품들의 표준화에 의존할 때 세계화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 현상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지난 세기부터 독일은 바늘 제조에 있어 어느 정도 전문화를 이루었으며 이 방식은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시대에 와서 차이가 나는 것은 최종적 이익이 아니라 수평적 통합구도의 부분이 되는 생산된 부품들이 지닌 높은 기술 수준에 있다.

III. 총괄적으로 본 나프타

이 고찰에 대한 부록으로 그 내용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프타 원문의 공식 요약서를 덧붙인다.

나프타는 가트 규정과 절대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지역적 개방 협정이다. 이는 그 세 가입국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상호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드높이려 한다는 말이다. 그 지역 밖의 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것이 아니므로 세계 다른 지역과의 무역을 증대시키는 데도 공헌할 터이다. '통과 조항' 덕분에 나프타의 메카니즘은 유사한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협정의 공식에 들어있는 필수사

항들을 이행하는 국가나 국가군이던 누구에게나 그 가입이 개방되어 있다.

이 협약은 가입국들의 발전상의 상대성 — 초기 단계에서 미국과 캐나다에게는 발전이 더 가속적이고 멕시코에게는 더 완만하다 — 을 고려하여 15년 기한 안에 일어날 무역자유화의 과정을 관망한다. 협정에는 각국의 법을 존중하여 석유나 전력, 그외 자국에게 보류해둘 활동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예외부문이 존재하는데, 이는 멕시코 헌법이 예견한 것과 일치한다.

개괄적인 장(章)이 있고, 부(富)의 성질에 따라 섬유나 자동차, 농업처럼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는 부문을 위한 장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신, 운수, 금융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을 위해 특별한 규칙들이 있다. 세관의 간소화와 명세서 작성에 관한 장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동문제나 환경보호와 관련된 두 개의 조항도 담고 있다. 이 협정은 담고 있는 잇점들을 조인국들이 누릴 것임을, 즉 어느 국가도 그 지역 밖 생산업자의 필수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임을 보증하기 위해 타당한 기준들을 세워두었다. 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한 필요한 행정적 기제가 심사숙고되어 있다.

이 조약은 극히 광범위한 문서로서 2천 페이지 이상에 달한다. 이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이다. 그 제작을 위해 다수의 기업가와 독립 전문가들, 조합지도자들의 도움에 의존했으며, 적어도 멕시코의 경우에는 교섭의 매 단계가 여론과 상원에 세부적으로 통고되었으며, 상원은 최종 승인의 사법적 책임자이다.

실체적용을 통해 보자면 이 조약은 가입국들에게 이로웠다. 예를 들어 1994년 1/4분기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27% 증가했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22% 증가했다.

IV. 멕시코와 한국 경제의 최근 동향

1. 멕시코

이 부분에서는 멕시코와 한국 경제가 주로 1990년부터 수렴의 궤도를 달리고 있음을 논하겠다.

멕시코의 경우 가트에 가입함과 함께 1986년에 시작된 개방경제의 결실들이 1990년대 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6년에는 또한 그보다 몇년 전에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약의 창설과 함께 시작된 안정화 정책의 결과들 — 사회의 다양한 경제부문에 대한 정치적 화합 무대와 같은 — 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결과들이란 국가를 좀먹던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감소, 교환시장의 안정화, 공공부문 은행부채의 재교섭, GNP 16% 적자에서 경미한 흑자로의 변화, 즉 국가재정의 근본적 재정립, 생산자로서의 국가 대신 통할자로서의 국가라는 개념에 맞춰 일어난 수많은 유사국유기업들의 분리, 그리고 은행의 재사영화, 매우 온건한 수준이긴 하지만 성장률의 회복 등을 말한다. 멕시코는 수지균형상 상당히 적자가 감소되었고 국가 외채가 최근 5년간 점차 줄어들었음을 볼 때 개방의 중요한 영향을 흡수했다고 할 수 있다.

수입품 세금과 상당한 양적 제한을 통한 40년간의 보호무역 이후에 멕시코 산업은 개방에 따른 대외경쟁력이라는 도전에 맞서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울인 전례없는 노력에 부응해야 했던 것이다. 이 개방은 수많은 기업들의 존속이라는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그 기업들 중의 많은 것은 수입품들을 대체한다는 온실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었다. 부문에 따라 다양한 원인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미래에도 그러할 기업들이 있다. 이런 기업이란 기술적으로 후진 상태이고 질이 낮거나 계획이 부적절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특히 비용을 통제할 수 없는 기업, '때에 맞춰' 양도하도록 계획되지 못한 기업 등을 말한다. 이런 상황들은 나프타가 효력을 발휘한 초창기부터 두드러져 보였다. 개방경제의 도전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기업들이 몰락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이는 계속될 터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치명적인 질병의 징후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감춰질 수 있을 터이고 병의 존속을 연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잘못된 대책들이 적용되게 할 수도 있다. 경쟁력 결여의 문제는 한 기업의 부채초과로 감춰질 수 있는데, 그 기업 책임하에 부채의 재조정을 통해 부채초과가 정정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몰락의 실질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당국은 결국 국가 이익과 상치되는 구조적 정책들을 마련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한 것의 존속이 당연한 선택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

의 소수가 자본을 과다축적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지는데, 그런 상황은 사회정의라는 허위 감정을 위해 별로 적절치 못한 대책을 적용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종심급에서 틀림없이 기업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기업 이윤을 과도하게 옹정하는 것과 같은 대책 말이다. 게다가 자국내에 국가들이 존재하는 것이 허용될 때 자본의 축적은 매우 정치적인 결정들을 통해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

국가경제의 내적 구성과정인 인플레이션을 결정적으로 근절시키는 경향이 있는 국고 및 통화 긴축정책을 필연적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이런 모든 현상이 현재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는 국제경제에의 병합이라는 정책에 있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봉괴를 비롯한 중대한 실패의 위협을 감수할 수는 없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세계에서 주된 무역 조합국의 인플레이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은 문제가 될 터이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리라는 위협은 경제의 자극제가 될 가능성과 경제진흥 수단들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가능성을 제한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장애물들과 위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모순들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경제는 국제경제에 전면적으로 병합되어가고 있으며, 그것을 드러내는 것 중의 하나가 나프타에의 가입인 것이다.

최근 들어 멕시코의 국제경제 정책에 있어 네 방향이 결정되었다.

- ① 북쪽 : 미국과 캐나다
- ② 남쪽 : 카리브 유역을 포함한 중남미
- ③ 동쪽 : 유럽
- ④ 서쪽 : 태평양 국가들

세계적 차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매력 집중국가들과 관련하여 멕시코가 지리상 중심적이고 특권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위의 네 방향에 위치한다는 건 사실이다. 그밖에 지리적 구조 때문에 멕시코는 태평양, 대서양과 경계를 공유할 뿐 아니라, 프랑스-영국계인 북미와 스페인-포르투갈계인 중남미를 이어주는 고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할 때 나프타는 북쪽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남쪽으로 멕시코는 1992년 칠레와 자유무역상호협정을 체결하여 좋은 결과를

났었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1995년 1월 1일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코스타리카와도 유사한 상호협정을 맺었는데, 중남미국들과의 이런 협정들은 앞으로 그 국가 모두를 포괄하는 다국가 협정을 통해 완성될 터이다. 이렇게 하여 중남미를 나프타에 합병시키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서명된 협정들의 다국가화를 향한 진전은, 가트가 갈망하고 있고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를 구성할 국가들이 서명하게 될 것이기도 한 세계화의 이상과 공존할 수 있는 자유무역의 부분적 구도를 완성하는 데 틀림없이 기여할 터이다.

멕시코와 다른 유럽국들, 특히 이베리아 반도국들과 영국, 프랑스와의 관계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근래에 유럽공동체와 협정을 실현시켰는데, 이는 현재의 유럽연합과도 효력이 있으며 무역과 투자의 유대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밖에 1994년 4월 많은 유럽국가가 가입해있는 OECD(경제협력 및 개발기구)에 멕시코가 가입한 것은 멕시코와 대서양국가들간의 유대를 증대시켜줄 것이 확실하며, 분업생산 체제에 있어서의 상호투자나 동쪽 방향 국가들과의 수평적 통합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최근 5년간 멕시코는 아시아쪽 태평양연안국과 특히 강력한 정책을 개발해왔다. 그리하여 ASEAN(동남아국가연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한국, 일본과의 관계가 강화되어왔다. 멕시코는 1990년에는 PBEC,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 1993년에는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회의)와 같은 태평양연안 기구들에 가입했다.

멕시코가 아카폴코와 마닐라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을 통해 16세기부터 20세기 초에 태평양에서 가졌던 매우 중요한 입지를 회복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 때에는 동양의 산물들이 아카폴코-베라크루스 항로를 따라 멕시코를 거쳐 유럽으로 갔으며, 그리하여 멕시코는 당시의 중심적 위치와 무역주도권을 이용하여 태평양 공동체와 대서양 공동체 사이의 효율적인 무역중개자가 되었던 것이다. 페루와 함께 은(銀)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멕시코는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그리고 특히 필리핀에서 오는 산물들을 살 수 있는 화폐를 주조하는 중심지 역할을 했다. 멕시코에서 주조된 8레알짜리 화폐는 많은 경우 중국과 동남아 여러지역들에 있어서의 합법적 화폐유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것은 중세유럽에 마르코 폴로가 시작한 (육지) 비단길을 보충하는 해양 비단길이었다.

과거를 재건하는 건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대적 상상과 감각을 통해 멕시

코는 남-북 관계 — 북미와 중남미 —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분업생산 체제와 세계 경제라는 정신 속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잠재력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전략적 입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2. 한국

1990년대가 되면서 한국만큼 중요한 발전을 겪은 나라는 거의 없다. 해결의 기미가 별로 없는 인종간 전쟁의 사례, 정치·경제·사회적 퇴화의 사례, 그리고 얼마전까지도 강고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국가정체성이 해체되는 사례 등이 많은 지역에 있었던 만큼 이는 더욱더 의미가 깊다. 오히려 남한은 오늘날 얼마전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던 면모를 보여주는데, 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수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경제의 국제화와 세계적 구도의 다면화를 향한 명백한 의지를 말한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코메콘의 몰락,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함께 냉전은 끝났다. 세계 정치에 있어서의 이러한 혁신은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생시켰다. 즉, 한편으로는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제국이나 오토만제국의 붕괴로 인해 일어났던 것처럼 부분들의 분산을 유발시켰는데, 그것들을 재배치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릴 터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부유럽과 중국에 대해 적어도 경제적 재정렬의 ‘도미노’ 효과를 발생시켰다.

1990년부터 남한은 모든 영역에서 이 국제적 대변동을 중시해왔고, 20세기 초부터, 특히 한국내부갈등이 시작된 때부터 취했던 것과 비교하여 색다른 정치경제 관계를 러시아 및 중국과 수립하고자 했다. 남한의 이러한 새로운 관계설정은 두 가지 궤도를 따른다. 그 하나는 이웃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하여 일련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러시아의 정치적, 이념적 재정렬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점차 멀어진다는 걸 암시하고,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남한의 무조건적 원조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편, 등소평이 착수하여 기념비적인 중요성과 결과를 낳은 중국의 현대화는 서방국, 특히 미국에게서 무역상의 동료를 모색한다는 걸 의미해왔다. 이 말은 과거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있었던 무조건적 유대관계마저 배제한 세계정치의 기준선과 최소한의 양립가능성을 가진 게임 규칙

을 정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한과 중국, 러시아, 나아가 베트남 사이의 새로운 관계설정은, 동독의 소멸이나 몽고와 동유럽 정치지도부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남북한이 각각 세계 다른 국가와 갖는 관계 — 분명히 남한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의 정치적 문맥에서 볼 때 매우 상이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제정치 질서에 있어 남한의 지평이 크게 확장되는 걸 의미하고, 불행하게도 북한에게는 수축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이 자신의 지평을 또다른 궤도, 즉 정치에서 세계로 확장된 것에 상응하는 경제관계의 궤도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이며, 이런 사실은 남한이 다양한 관점들이 표출되는 복수성의 사회이기에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남한의 커다란 민족적 관심은 국제정치적 화합의 재편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목을 조름으로써 통일을 모색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제기하는 몇몇 고립된 목소리들을 압도했다. 1993년과 1994년 핵위기와 관련하여 비타협적 입장에 대면했을 때 굳건하게 침착성과 화해정신을 유지했던 것은 더욱 주목할 만했다.

한국은 1992년부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특히 경제적 국제화를 가장 우선적인 경제목표로 삼았다. 또한 국민학교 때부터 학교에서도 컴퓨터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이나 초등 단계에서부터 영어를 교육시키는 것과 같은 교육분야에서의 대책들도 세웠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는 이 두 국가에 대한 무역과 상호투자라는 중요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했다.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 경제의 융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생활수준을 같게 함으로써 다른 길보다 훨씬 가능성있고 이로운 '온건한 길을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이 허용되는 상황이면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명백한 소망을 보여주었다. 동남아 및 리비아와 같은 '문제국가들'을 포함한 중동에 나가있는 남한 기업체들의 활동은 계속 촉진되었다. 남한의 건설회사들은 1994년 해외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건물들을 세웠다. 끝으로 한국은 서구에 대해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나프타와 함께 이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반도는 일군의 시장들, 특히 러시아, 중국, 일본, 동남아와 관련하여 높은 전략적 입지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상의 하위체를 위해 생산하기에 이상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멕시코가 남북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해,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그러하듯이 다른 시장들에 공급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터이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중동, 북아프리카에 대해 동시에 공급하기 위한 전략상의 동료를 유럽대륙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처럼 멕시코의 경우와 유사하게 한국은 사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멕시코든 한국이든 분업생산 모델과 상호투자의 증진, 그리고 자국경제를 세계 속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몰두하고 있다.

V. 나프타가 한국에 파생시킬 기회와 위협성

나프타로 인해 한국이 맞게 될 도전과 기회는 한국의 경제정책에 많이 의존할 터이다. 특히 현대화, 세계화, 국제화를 향한 전진을 지속시키려는 정책에 맡이다.

1. 구조적 변화의 관리문제

경제정책의 매우 중요한 양상은 생산성이 낮고 기술이 초보적인 활동들을 국내에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생산성이 매우 낮은 활동들은 국가의 평균소득을 지속적으로 격감시킬 터이고 따라서 국가의 전체소득 수준도 낮추게 될 터이다. 생산성이 낮은 부문들을 발전수준이 낮아서 그것들을 받아들일 조건에 있는 국가들로 '수출'하는 것은 분명히 신중한 전략임에 틀림없다. 생산성이 증가하는 노동을 담당하게 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자층의 능력을 키워주는 메카니즘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명백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국가에서 기술변화 과정을 실행하거나 집행한다는 건 복합적인 과제이다. 최근까지 이론상으로는 실천상으로도 그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고 부문 발전의 정책을 맡은 당국의 특별한 노력도 요구되어왔다. 과거에는 시장의 힘과 국제 경쟁력, 발전의 단일한 과정 등이 '다윈' 현상을 불러일으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이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들과 부문들의 필멸성은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들에서 커다란 반발을 야기시켰다. 한편으로는 기업 소유주들이 자신들이 아는 활동을 버리려하지 않았다. 시장의 힘에 의해 사라질 위협에 처한 기업들은 그들 자신이나 조합 및

의회는 정치적 영향력에 호소하여 정부에 대해 보조금이나 무역보호를 요청한다. 노동지도부는 조합원을 잃어 정치력을 상실케 되므로 회사의 폐쇄에 대해 저항한다. 당국은 마찰실업률의 사회적 결과를 두려워하여 종종 노동의 강력한 원천을 유지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각본에 굴복하게 된다. 전통주의자들이 자신의 활동들은 국가 문화를 이루므로 국가의 역사 유산을 망각할 위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의 소멸에 반대하는 걸 보게 되는 건 흥미롭다. 오래전부터 중단되어 기술수준이 매우 낮은 국가들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경제활동들이 선진국에서조차 여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압력이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의류제조산업은 전통적으로 매우 보호를 받아왔다. 왜냐하면 만약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오래전에 그 나라에서 소멸되어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다른 지역으로 의류생산이 옮겨갈 것을 터이기 때문이다.

반대의 의미로 몇몇 아시아국가의 구조변화 정책들, 특히 최근 한국경제에서 관찰되는 경향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능력화 제도를 통해 기술수준이 낮은 기업들을 더 높은 기술수준으로 '이동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당국은 1965년부터 '사양부문'과 '신생부문'을 규정했다. 사양부문이란 수년 동안 생산성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될 뿐더러 기술수준이 평균이하여서 개방경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견뎌내지 못하리라고 결론내린 부문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소멸되어야 한다. 그것의 소멸은 점진적이고 가속적이도록 조심스럽게 계획된다. 공장이 폐쇄될 때 이미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강력한 능력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그 문제가 '첨예화'된다. 그리하여 회사 폐쇄로 인해 일어나는 마찰실업이라는 상황과 배상금 마련을 위한 부채가 최소화된다. 또한 굉장한 자원 낭비이자 주요 인구들의 일할 의욕을 극심하게 감소시킬 실업 보조금이라는 국가 제도도 불필요해진다.

싱가폴은 1965년부터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부문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제조부문을 다른 국가들로 이동시켰다. 제철산업이 우세했던 1960년대의 조립업과 화장품산업의 경우가 그러했고 섬유공업 및 중화학공업이 우세했던 1970년대 자동차공업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런 부문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능력화를 통해 높은 기술의 신생기업들에 재배치되었다. 인력 자본에 역점을 둔 덕분에 싱가포르

폴은 지역적 한계들과 천연자원의 절대부족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국제화합이라는 정치상황 하에서 정보·후기산업사회를 향해 매우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싱가폴은 1965년에 1인당 300달러의 소득을 거둘 수 있었고, 1993년부터는 구(舊)식민세력인 연합제국을 극복하여 1994년에는 1인당 18,000달러의 소득을 거뒀다. 최근 한국에서는 구조적 변화를 관리한다는 신중한 경향이 느껴진다. 한국의 두드러진 발전은 이미 국제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불리일으켰다. 10년 전부터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로 점진적으로 진출해왔다. 해외건설의 경우가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의 하나이다. 건설회사들의 기술발전 덕분에 한국은 동남아와 중동에서 중요한 망(網)을 만들었으며, 그 덕분에 올해에 65억 달러 가치의 민간 건물을 해외에서 짓게 된다. 여러해 전부터 주요 기업들이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그리고 다른 아시아국가들에서 대협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냉전의 종결로 인한 세계 지정학적 재구성은 한국의 경제적 국제화와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광범위하게 열어주었다. 인도네시아나 중미국가들, 중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투자의 기류가 명백해지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운동복이나 저가(低價)의 섬유산업 등과 같이 한국의 산업에서 기술이 낮은 부문들을 넘겨받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은 필요에 따라 포기하여 아직은 상대적으로 더 장기간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들을 이전시키고, 국가의 노동 인구들이 생산성이 더 좋고 소득 수준이 증가하는 업무에 자리잡을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당국자들과 생산업계,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사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러한 경향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화를 통해 여러국가들과 상호투자함으로써 분업생산 구조에 도달하면 다양한 공정 속에서 훨씬 질높고 기술수준이 우수한 부의 생산이 시작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향후 10년간 매년 9% 성장하리라고 볼 때 잘못된 소득분배 정책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임금 성장률 또한 그렇게 될 것인데, 이런 임금성장이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러한 임금 성장은 예를 들어 섬유, 신발, 제철업 및 화학산업의 하위부문들, 조선공업, 자동차공업 등과 같은 한국 경제상 중요한 부문들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 그럴 리가 없긴 하지만, 한국이 '관리되는' 국제통상의 불합리성에 빠져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자국이나 세계공동체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이러한 업종들을 보호하기로 하지만 않는다면, 러시아, 중국, 인도차이나, 그리고 태평양 동연안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서구에서 제공해줄 광범위한 지역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부문들을 미래와 동일한 혹은 보다 비옥한 국외 목초지로 이전하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 마지막 의미에서 볼 때 나프타나 멕시코와 중남미 사이에 합의된 조약들이 제공해줄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국제화구도를 재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체들의 계획적인 이주를 통해 생산성이 더 낮은 부문들이 오늘날 한국의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경쟁 현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엄격히 말해 이 조약들을 옹호하여 많은 부문들에서 상호투자의 거대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3. 국제분업의 결정인자들: 한국의 상호투자에 대한 그것들의 반향

지난 10년간 국제분업, 즉 경제활동의 국제간 분배에 대해 많은 글들이 쓰여졌다. 이런 의미에서 사고 흐름의 대부분은 세계의 남과 북 사이의 가상적이거나 실제적인 차이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반 설명들에 찬동해왔다. 어떤 이들은 일반적으로 북에서는 열심히 일하지만 남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찬 기후가 열대 기후보다 발전과 더 긴밀하다고 주장한다. 더 많은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교가 기업정신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 국가들의 착취의 희생물이라고도 말한다. 저개발은 발전에 대한 체계모니적 야심에 의해 유발된다고 주장되어왔다. 아더 루이스와 같은 이론가들은 가난한 국가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주장해왔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

- ① 어떤 국가들은(마찬가지로 사람도) 무지하기 때문에 가난하다.
- ② 빈곤과 발전 문제의 뿌리는 인적자본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달려있으며, 이 인적자본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 창출된다.
- ③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즉 교육, 과학 및 기술, 기초학문들, 컴퓨터언어를 포함

한 제 언어, 그리고 지속적인 훈련 등이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우선해야 한다.

④ 인력자원예의 투자는 천연자원상의 모든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경쟁우위를 다져주고 국가 발전에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어느 반구에 있든간에 국가들은 원래의 조건들에 의해 운명적으로 한계지워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적 자산에 따라 의지대로 이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

⑤ 국가들은 국제분업의 스펙트럼 속에 동일하게 위치지워진다. 한 국가는 과학자, 기술자, 양질의 노동자, 유능한 경영자, 유능한 정치지도자 등 자국의 지적 자원이 도달하는 범위 내의 것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따라서 어디에 있는 국가든 자신의 인력자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을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 다른 국가들과 관련하여 자국의 대학들이나 기술연구소들의 양과 질이 허용하는 생산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⑦ 한 국가는 과학자와 기술자 등의 요소들로 측정되는 자국 인적자본 증가율보다 다소 뒤쳐진 비율로 성장한다. 경험상으로 볼 때 그런 성장부진이 별로 오래가지는 않다. 몇십년이 아니라 대략 5년 정도인데 이는 대학의 순환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인적자본의 생산자체와 발전에 요청되는 인적자본 사이의 적절성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진다.

⑧ 컴퓨터의 숫자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향후 25년간에 대해 말한다면, 한 국가의 미래는 현재 초등교육 수준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에 의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예정되어 있다.

만약 이상의 것들이 확실하다면 한국기업들을 타국으로 이전하는 것의 성공 여부는 일차적으로는 이전국의 기술수준에 달려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멕시코와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중공업, 석유화학공업, 전자공업, 재료공업, 전자재 및 건축기술산업 등과 관련된 수많은 상호투자의 기술을 어려움없이 흡수할 수 있는 중간적 기술 상태에 와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1차 원료의 공급 단계인 '보충적 경제'의 단계를 오래전에 넘어섰다. 이제는 중급이나 중고급 수준의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자본제휴를 가능하게 해줄 중급 또는 고급의 기술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4. 한국경제를 위한 나프타의 기회들

우리는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이 그 구조적 변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 다시 말해 경제라는 나무로부터 비효율적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가지들을 ‘전정(剪定)’ 혹은 ‘이식(移植)’하리라는 합리적이고 가능성도 높은 가설에서 출발해보자. 그러면 물질적 재화가 용역, 특히 아주 고급인 기술분야의 용역에 훨씬 못미치는 비율로 생산되는 후기산업사회로 한국을 점차 이끌어갈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물건이 생산되는 대신 생각 — 선매계약(先賣契約), 특허, 외환, 유가증권 및 해운화물거래와 같은 복합적 금융서비스, 협동전략,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기술 및 특허의 혁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그외 고가치의 생산물들 — 이 생산된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지식 총생산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문제다. 세계화된 경제 속에서는 해외 생산이 국민생산에서 아주 중요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되도록 의도된다. 이러한 구도에서 보면 쇠퇴하는 기술수준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경향의 부문들에서 한국경제가 갖는 경쟁력의 문제들은 소멸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경쟁사례들, 멕시코의 예를 들어 섬유공업, 제화공업, 의류공업 등에서 경쟁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이러한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구조적 변화가 예견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구조적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한국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은 국가평균치보다 생산성이 낮은 활동들을 자국경제 내에 유지해나갈 것이다. 이런 경우 비싼 대가를 통해 보호받는 생산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경쟁력을 갖지 못할 것이고, 이 국가가 ‘관리산업’의 실천마저 포기한다면 한국 상품은 일정 기간안에 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자유화가 한국에게 주는 잇점은 북미국가들의 높은 소득수준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리라는 점만이 아니다. 북미와 서구를 총괄한 공동투자를 통한 한국 경제의 연대는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형태의 다양한 자원을 받아 거의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팽창하여 차세기에 그 증가분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멕시코를 통해 그 지리상의 중심 위치가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의 차원에서 하나의 뛰어난 경영토대가 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경영의 병참기지로서도 상당한 잇점들을 가진다. 실제로 1994년 동안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보다 큰 이익을 거두었음이 주목받아왔다. 1992년까지는 경공업과 관련된 계획들과 100만에서 500만 달러에 이르는 계획들이 숙고되었다. 현재는 각 계획마다 5천만에서 2억 달러의 수준으로 전자공업, 자동차공업 및 여타 공업에 대한 계획들이 분석되고 있다.

우리는 멕시코가 한국의 새로운 자동차공업이나 로보트 수준의 해운기중기제조업,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한 조선공업, 2차 석유화학공업, 전자공업 등을 발전시키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임을 지지해 왔다.

VI. 나프타에 직면한 한국의 선택

일단 이상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나면 나프타와 관련해서 한국에게 제시되는 정치적 경제적 선택사항들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1. 현상태의 것들을 버린다

한국이 나프타와 관련하여 정치·경제적 질서에 있어 어떤 주도권도 잡지 않기로 할 경우 한국은 자기 고유의 제도를 따르기만 할 것이고 그러면 우루과이 라운드의 경우와 같은 범세계적 차원의 협상들에 구속받게 될 터이다. 이 협상들이 미래에 갖게 될 작용을 통해 한국의 경제정책은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세계자유화의 구도 속에서 제시될 기회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에 명백하게 초점을 두게 될 것이다.

2. 미국과의 쌍무협정에 서명한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방향에서 시작한다면 자연스럽게 멕시코와 한국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나프타와의 관계에서 멕시코가 취하는 것과 유사한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략이란, 특히 정치질서 내에서 특별한 감각으로 다룸으로써 협상에서 제외될 재화와 용역들을 결정하는 것에 있다. 또한, 자동차나 섬유, 운수, 전화통신, 그리고 금융 및 특별한 방법론을 적용시켜야 할 용역 등과 같이

특히히 취급해야 할 부문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기도 하고, 미국에서의 한국 생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고 한국에서의 미국 생산물에 대해서는 보다 느린 불균형한 세금부과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국들의 발전 수준상의 차이가 인정되도록 하는 것에 있기도 하다. 그리고 한국의 OECD 가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선결로서 나프타가 교섭되도록 하는 것에 있기도 하다.

쌍무협정의 잇점은 무역자유화의 시기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있기도 하고, 또한 자국을 골치아픈 상황에 빠뜨리거나 몹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도 있는 미국 생산물들에 대해 한국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혹은 무계획적인 압력을 가능한 한 피하는 데 있기도 하다. 협정의 구조는 경직된 것이 아니라, 가속화될 수도 취소될 수도 혹은 보호에 종속될 수도 있다. 이는 훨씬 적은 정도이긴 할 테지만 조약이 있건 없건 계속 존재할 단기간의 압력에 대한 절대적 해결책인 것도 아니다.

한국 상품이 미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또다른 잇점은 미국 안에서 다양한 공동투자, 특히 기술 부문에 있어서의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알래스카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주(州)는 한국의 어업 분야와 중동국가들에서 한국이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석유개발 등에 대해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적어도 관광투자에 매력적인 장소인 하와이나 다른 섬을 포함한 미국의 태평양 영토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모든 관점에서 대단히 전략적인 곳이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중국, 일본, 인도차이나 등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지켜볼 수 있는 훌륭한 기지가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한국과 연대하는 것은 공동투자를 통해 미국이 시베리아와 북중국 등 한국 경제의 팽창 앞에 열려 있는 새로운 지역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만주와 여타 북중국 지역들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가진 지식과 연관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광대한 시장은 한국과 더불어 이 지역에 접근할 수많은 북미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매우 중요한 활동계획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태평양 양연안, 특히 APEC과의 관계에 중요한 연결점이 됨으로써 다양한 주도권이 실체화될 것이다.

3. 멕시코나 캐나다와 자유무역에 대한 쌍무협정에 호응한다

캐나다의 경우는 미국과의 협정을 약화시켜 변형한 형태가 될 것이다. 특히 어업, 광물-야금업 부문들과 보다 발달된 기술산업에서의 공동투자에 있어서 캐나다를 위해서든 한국을 위해서든 아주 명확한 잇점이 나타난다.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해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와 맺은 관계가 제공해주는 이익보다는 적겠지만 아래에서 생각해볼 두 가지 긍정적 특성을 지닌다.

① 멕시코는 북미와 남미,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그것의 중심적 위치는 생산과 교역면에서 무척 유용하다.

② 중남미의 중요한 하위체와의 다자간 관계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은 멕시코가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와 체결한 조약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택은 외면상으로는 아주 복잡하지만 사실상 이 모든 국가들과 멕시코의 발전수준에는 놀라운 유사성이 존재하므로 이런 형태대로라면 이 국가들과 한국 사이의 다자간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이 경우 한국에게는 의심의 여지없는 새로운 전망이 열릴 터인데, 그것의 지평선은 하나는 MERCOSUR(남단공동시장)의 방향으로, 또 하나는 카리브해를 통해 유럽쪽으로 펼쳐질 것이다.

4. 나프타의 일원으로서의 한국

이미 언급한 대로 나프타는 현재의 소속국이 합의하고 자국 정부기관을 통해 협정 인증의 내부적 필요조건을 완수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그 국가 혹은 국가그룹이 나프타에 참여할 수 있다는 통과 조항을 가지고 있다. 북미 이외의 국가들이 가입할 가능성이 언급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프타가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특성을 지닌 국가들간의 불록 형성을 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사실 이와는 정반대로 나프타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도를 통해 무역의 다자화, 자유화에 기여하는데도 말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때부터 나프타는 알래스카에서 파타고니아에 이르는 아메리카대륙 내의 자유무역지대로 이해되는 '아메리카의 주도세력'이 되고자 한다고들 말했었다. 집권자가 바뀔 때 함께 이 용어가 사라졌을 때조차도 그것은 자유무역의 이상을 주장한 사람들이 이 계획을 현실화하도록 추진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 이 메카니즘에 칠레가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가 이미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캐나다의 대외무역 차관보 벨로우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신문지상의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에 조인하는 것의 장점들을 연구해보도록 제안했다. 멕시코 대외관계 서기관 마누엘 떼요 대사는 1994년 2월 멕시코를 방문한 경제문제 보좌관인 순준영 대사에게 한국 지도자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동일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을 위해서든 미국을 위해서든 쌍무적 관계가 갖는 잇점들은 이미 제시되었고, 이것들은 나프타와 관련된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국,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을 나프타에 가입시키는 것은 중남미 여타국가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특히 태평양 양쪽에서 거대한 전망을 갖고 매우 중요한 연대를 이룩해냄으로써, 그리고 그 관계가 확대되어갈 때 다자성을 먼 보다 광범위한 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모두에게 매우 유익해질 것이다.

1991년부터 이관유 같은 저명한 인사들은 우선 초안 수준에서는 나프타를 ASEAN 국가들과 관계지우고 이후에는 막 탄생한 동남아시아자유무역협회와 연결짓는 것의 적합성을 암시했다.

한결음씩 나아가 집단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무역 구도의 건설은 지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제 2차세계대전 직후에 아바나회담에서 선포되었고 가트를 낳았으며 오늘날은 WTO(세계무역기구)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이상(理想)에 이르기 위한 실질적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필자의 것도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닌 자기자신의 척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프타의 조인국들과의 자유무역이라는 경제 유대가 제공해줄 도전들과 전망들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내성을 해야만 한다.